

2026. 6. 29 (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시사점

-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의 2천조원 이상 투자 계획 발표
- 연평균 200조로 보면 GDP(2025년 명목) 대비 7.5% 규모
-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서 나오는 물량은 2031년 이후, 2027년말까지 메모리 쇼티지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
- 에너지는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는 발표, 전력 공급 계획은 추가 상향 필요, 발전 믹스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혜. 건설경기에도 호재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sunwoo.kim@meritz.co.kr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kyeongwon.moon@meritz.co.kr

본질은 수도권 밖에 AI 시대 핵심 생산 기반을 분산배치하고, 전력/용수/인허가/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붙여 민간 초대형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 3대 프로젝트는 1) 반도체, 2) AI 데이터센터, 3) 피지컬 AI. 여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4) 전력·용수·용지 등 기초 인프라가 사실상 네 번째 축으로 붙음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반도체(1,100조), AI 데이터센터(1,000조)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200조 투자, 2025년 명목 GDP 대비 7.5%에 해당하는 규모. 한국 GDP 대비 투자(비주거용 건설투자+설비투자) 비중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 peak가 23%, 2026년 1분기 기준 12.8%. 이번 투자 발표 규모는 단일 산업 발표 기준으로 보면 매우 큰 수준으로 평가

반도체 프로젝트: 1) 서남권을 제2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도, 메모리 팹 4기를 구축. 2) 충청권은 HBM과 첨단 패키징 중심 거점으로 육성되며, 관련 투자 규모는 81조원으로 언급. 여기에 차세대 메모리, 엠티용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15년간 30조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포함

3)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도 앞당김. 수도권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평택 생산라인은 순차 건설에서 동시 건설 방식으로 전환해 3~4년간 기간을 단축하고, 용인 반도체 거점은 기존 계획 대비 최대 7~12년 앞당기는 방향.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당초 204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조정되고, 용인 600조원, 청주 100조원 투자를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내용 제시

AI 데이터센터: 정부는 2029년까지 8.4GW, 금액 기준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추진, 2035년까지 추가 10GW를 더해 총 18.4GW 규모로 확대. 금액 기준으로는 2035년까지 1,000조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상. SK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는 1단계 5GW, 2단계 10GW 등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각 지역에 순차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언급

전력과 용수: 정부가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책임지고 공급, 인허가/부지/건축 단축하여 생산능력 신속 확충. 서남권 반도체 거점에는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 수도권 반도체 거점에는 15GW의 전력과 하루 150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 여기에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추가 전력 수요도 8GW 안팎으로 언급.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망, 용수, 부지, 지역별 전기요금제, AIDC 전용 요금제의 실행 속도에 달려 있음

피지컬 AI: 현재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점유율은 약 1% 수준, 정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피지컬 AI 도입을 통해 주력산업 생산성을 20%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1가구 1로봇, 산업재해 사망 제로, 지역 기반 로봇 양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향

시사점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으로서 증장기 투자 계획 필요성 확인. 발표된 추가 투자 규모는 현재 메모리 공급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서남권 투자에서 나오는 물량은 2031년부터나 출하될 것. 현재 메모리 산업은 극심한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이는 2027년말까지 해소되지 못함

에너지: 에너지 관점에서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는 발표. 총 18.4GW의 IT로드에는 약 40GW 가까운 신규 전력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음(N+N 아키텍처 등 감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5GW에 비추어보면 서남권, 충청권의 반도체 공장에도 5GW 내외의 신규 전력 수요 예상

전력 공급 계획은 추가 상향 필요. 발전 믹스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혜. AI DC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더 많은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 단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밸류체인 수혜. 특히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ESS 역할에 가장 주목. 분산형 전원, 기저 발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SMR에 대한 언급 없었으나, 장기적으로 필요성 증가. 연말까지 12차 전기본 내용에 관심 필요

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가속화 + 서남권 신규 팹은 건설 경기를 끌어올릴 전망. 반도체 팹 건설 기업들의 2027년 이후 신규 수주 기대치 상향 필요. 데이터센터 사업비의 규모가 대폭 커지며, 대형 플랜트 사업으로 바라볼 필요. 내수 건설 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 다만 인력 부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은 주택 사업에 다소 부정적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